25집 <재미수필> 출판기념회 및 시상식 단체 사진

김영애 네번째 수필집 『 몸 연꽃 피우기』 출간

김 작가는 머리말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치열하게 자신의 알맹이를 지켜내고 거짓 없는 정직함으로 자기를 숙성시킨 홍시의 삶, 나의 글은 홍시만큼 숙성되었을까. 완벽으로의 나의 수필 세계를 위하여, 또 한 번 보이지 않는 창작의 세계로 발돋움하겠다” 고 밝혔다.

제25집 재미수필 출간 (2023년 12월)

회원 45명 작품 수록
자유제 75편
테마 / 25, 그 의미 4편
특집 / 디카 에세이 9편
제9회 재미수필문학상 1편
제18회 재미수필신인상 수상작 5편
총 340 페이지
연락처: jaemisupil2021@gmail.com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뉴스레터 제 84호

퓨전수필

2024 Winter

재 미 수 필 문 학 가 협 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01 이현숙 협회장 발간사 기운 받으세龍
02 이어령 고전수필 지게
03 목필균 추천 시 1월
2024년 재미수필 26집 원고 모집
04 최미자 아테네의 예술 정신과 꿈을 담은 도서관
05 김석연 일하는 즐거움
06 박유니스 어떤 헌신
07 김영애 명상에서 얻은 자유
09 신순희 문 앞을 서성이며
10 김수영 잃어버린 워커 Walker
12 박중진 고사리 증후군
13 이중운 배롱나무 꽃잎을 쓸며
14 노영매 두 번째 가을학기
16 장명옥 하나 둘 셋
17 2023년 회비납부 현황 (1월~12월 31일)
18 임원 소개 / 지역별 동네방 소개 / 재미수필 유튜브 소개
19 재미수필 25집 출판기념회 및 시상식 이모저모
20 겨울호 행시 김수영 외 7명 <눈꽃송이>
협회소식 및 회원 동정 / 타 문인협회 소식
회원 신간 소개 김영애 수필집 <몸꽃 피우기>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모임 안내

– 월례회 –
ZOOM MEETING / 대면모임
매달 셋째주 일요일 서부시간 5pm

– 연락처 –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KEAA)
4946 East 6th St., LA, CA 90022
YouTube: 재미수필
Website: jaemisupil.com
Email: jaemisupil2021@gmail.com

– 지역별 모임 안내 –
(작품 합평 · 문법 수업 · 친목 도모 등)

* 밸리방: 이리나 llee439@yahoo.com
* 엘에이방: 이정호 jlee511640@sbcglobal.net
* 토렌스방: 최숙희 choisookhi@gmail.com
* 오렌지방: 이희숙 heesookyoo220@gmail.com
* 얼바인방: 권조앤 joannkwon1208@gmail.com
* 온동네방: 박진희 jinheepgh@gmail.com

기운 받으세龍

2023년은 코로나바이러스 후폭풍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었다. 무차별 흉격과 인종차별 행위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져 불안에 떨었다. 전쟁으로 뒤숭숭했고 이어진 파업으로 뉴스 보기가 불편할 정도다.

대외적으로 시끄러웠지만, 본 협회는 꾸준히 변화를 추구했다. 웹사이트와 유튜브, 퓨전수필 그리고 동네방 활동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성과다. 회원에게 웹사이트의 협회 연혁 읽기를 권한다. 알차게 일 년을 채우며 회원과 협회를 위한 선배들의 노력과 정성이 이루어낸 성과를 볼 수 있다. 지나온 그 길이 귀하다.

몸담은 협회의 역사를 알아두면 자긍심과 글 쓰는 자부심도 생긴다. 그동안 협회 행사에 다녀간 한국의 작가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협회지에 작품을 낸 회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큰 변화다. 이어서 잘 발전시키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할 의무다.

책장에서 창간호를 꺼냈다. <재미수필> 창간호와 25집을 나란히 책상 위에 놓으니 감회가 새롭다. 창간호 책갈피에 출판기념회 단체 사진과 초청장이 소중히 자리 잡고 있다. 사진 안에는 30여 명 창립 회원이 환하게 웃고 있다. 한 분 한 분 짚어가며 추억을 떠올렸다. 이미 세상에 안 계신 분, 본국이나 캐나다로 가신 분, 타 장르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중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협회를 사랑하는 회원도 있다. 모두 그립고 보고 싶다.

올해는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 '청룡의 해 다. 용은 십이지 동물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이자 희망과 성취의 상징이다. 구름을 박차고 승천하는 龍의 기운을 받자.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의 주제를 화룡점정의 표현으로 담아낸다면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힘이 난다. 용의 해에 풀어갈 숙제다.

회장 이현숙

지게 / 이어령(李御寧 1933년~2022)

지게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다. 우리 겨레의 정이 배고 피가 도는 물건이다. 그것에는 운반 수단 이상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

우선 지게의 모양을 보라. 그것을 져 온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마음씨처럼 순박하기만 하다. 쇠못 하나 박은 흔적이 없다. 솜씨를 부린 데도 없다. 애초부터 지게 모양의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대강 다듬고, 몇 군데 구멍을 뚫었을 뿐이다. 나는 이 순박을 사랑한다.

지게에는 노래가 있다. 지게꾼들은 작대기로 지겟다리를 치며 그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외로운 숲길, 한적한 논두렁에서 그것은 다시없는 위안이다. 악보를 보며 배운 노래가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득한 할아버지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노랫가락이다.

지게에는 평화로운 휴식이 있다. 나무 그늘에 지게를 뉘어 놓고 그 위에 잠든 농부의 얼굴들. 안락의자에 잠든 어느 신사의 얼굴이 이보다 평화로우랴!

지게에는 또 고운 마음이 있다. 나무꾼의 지게에는, 봄이면 진달래가, 여름이면 산딸기가, 가을이면 들국화와 단풍이 꽂힌다. 무엇을 생각하며 꽃을, 열매를, 잎을 꽂을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멋이요 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지게를 볼 때마다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먼저 한숨이 흘러나오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게는 어깨에 멜빵을 걸어 지는 1인용 운반 수단이다. 어깨에 걸어 지기 때문에 지게는 괴로운 것이다. 짐의 무게를 온통 몸으로 지탱해야 한다. 물보다 어렵다는 구절양장을, 짓누르는 짐을 지고 올라가 보라, 내려가 보라. 숨이 차다. 무릎마디가 아프다. 뿐만 아니라 지게는 한 사람의 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짐을 운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괴로운 걸음을 두 번, 세 번, 아니 열 번, 스무 번 반복해야 한다. 수레를 이용했던들 그런 괴로움은 쉽게 덜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어느 때, 그 어느 세상에서도 운반 수단은 필요했으리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하필 이 괴로운 지게를 만들었던 것일까? 하기는 수레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무 적었다. 아니, 많았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수레가 다닐 만큼 넓은 길이 없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은 힘들여서 넓은 길을 닦지 않았다. 다니다 보니 저절로 생겨난 그 비탈길, 그 오솔길, 그 논두렁길... 그러나, 날라야 할 짐은 많았다. 지게는 어디나 갈 수 있다. 사람이 갈 만한 길이면 어디나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게이리라.

왜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히려 하지 않았을까? 왜 굴이라도 뚫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지게의 괴로움을 맛보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나'를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나'를 맞추려 했던 데서 지게가 생겨난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게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지게를 사랑한다. 그러나, 지게를 벗어 던질 수 있는 넓고 곧은길을 더욱 사랑한다. 시원스럽게 뚫린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그리고 나라에서 나라로 길이 하나 생길 때마다 우리의 삶도 그만큼 넓어진다.

길을 닦아야 한다. 그래야 천 년 동안이나 져 온 그 괴로운 지게에서 벗어나, 새롭고 넓은 세계를 향해 우리는 마음껏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J

1월

목필균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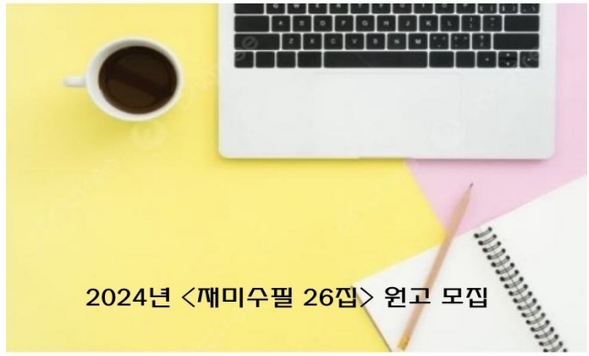
새해가 밝았다
1월이 열렸다

아직 창밖에는 겨울인데
가슴에 봄빛이 들어선다

나이 먹는다는 것이
연륜이 그어진다는 것이
주름살 늘어난다는 것이
세월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
모두 바람이다

그래도
1월은 희망이라는 것
허물 벗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살아 있는 달

그렇게 살 수 있는 1월은
축복이다



2024년 <재미수필 26집> 원고 모집

2024년에 발간할 <재미수필 26집>을 준비합니다.
회원들의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엮고자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자격 / 본 협회 정회원
* 기간 / 2024년 2월 1일 ~ 5월 31일
* 퇴고 마감 / 2024년 5월 31일

*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1. 자유제 2편
  -2. 자유제&특집('수필' 은 나에게)
  -3. 자유제&디카수필(사진 첨부-흑백으로 나옴)

  자유제 - A4 용지 1장 반 분량 2,000자 미만
  특집수필 - A4 용지 1장 반 분량 1,300자 미만
  디카수필 - A4 용지 1/2 분량 600자 미만

* 약력/ 등단지, 등단 연도, 수상 경력, 저서명 등
  세 줄 이내 (수정하실 분에 한하여)
* 사진/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얼굴 사진(사진 바꿀 분)
* 주소 & 이메일 & 전화번호 (바뀌신 분에 한하여)
* 원고 제출/ 웹사이트/26집 게시판 (2024)
  이메일/jaemisupil2021@gmail.com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편집부

아테네의 예술 정신과 꿈을 담은 도서관 / 최미자

일 년에 한 두어 번은 멀리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어 마음으로 그려보기도 하지만, 파도 소리를 들으러 라호야 해변으로 간다. 세계 방문객이 들리는 곳이라 주차가 어려워 자주 갈 수는 없다. 월요일인 20일 월(Wall) 길에 있는 고풍스럽고 특별한 도서관으로 갔다. 피아노 연주를 기다리는 애호가들이 벌써 입구에서부터 길가로 긴 줄을 서 있다.

나는 라호야의 터줏대감이고 아직도 정정하신 95세 동갑내기 부부 의학박사(김병목, 한화심)를 모시고 가느라 겨우 정오 전에 도착했다. 모두 내려 드리고 운이 좋게도 90분 자리 주차장도 얻었다. 공연을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곧 나와야 했다.

도서관 입구에는 미니 콘서트를 준비한 코디네이터 루시 여사가 안내장을 주면서 맞이하고 있다. 백오십 명쯤 되어 보이는 관객들이 복도까지 들어와 앉아있었다. 한양대학 음대를 나와 미국에서도 사사했고 라호야에 살고 있다는 Kasey Kay(지경실)가 자랑스럽다. 안내장에는 친정아버지와 동생 등이 모두 음악가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나는 몇 해 전 그녀를 한국 사찰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아름답고 느린 드뷔시의 곡을 시작으로 베토벤의 소나타 30, 웅장하고 아름다운 바흐 부조니 샤콘느와 시실리아노를 연주하니 이십 분이 지났다. 후반엔 쇼팽의 녹턴과 Piazzolla의 Libertango를 연주해 주니 흥겨운 분위기였는데 한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앙코르곡으로는 내 귀에 익은 '터키행진곡'을 재즈 버전으로 그녀가 신나게 쳐주었다

이 도서관은 1894년 개척정신이 강했던 라호야에 사는 신여성들이 만든 독서모임으로 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사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려보는 상상의 오래전 시대의 여성들은 지혜와 예술 그리고 전술로 알려진 아테네의 여신들이 혹시 아닐까. 그 후 독지가와 여러 사람의 후원을 받아 옆 건물을 사고 건축하며 여태 아름답게 보존하고 있다.

도서관 이름(Atheneaum Music & Art Library)처럼 고대 아테네의 정신을 불어 넣는 예술학당이며 도서관이다.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그림 그리기와 도자기 등의 계절 강좌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공부하고 발표도 한다.

그리고 오늘처럼 무료로 각종의 음악 연주회도 자주 열린다. 월길과 만나는 지라드(Girade) 길에는 유명한 서점을 비롯하여 근처 길목에는 멋진 식당들도 많고 볼거리가 있는 상점들이 있어 쇼핑도 하며 산책하면 좋다.

눈부신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정신을 혼란시키는 전화기에만 빠지지 말고, 예전처럼 예술도 감상하고 고요히 명상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시대가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난 생각된다. J

일하는 즐거움 / 김석연

졸 수에 가까운데 망치 자루를 놓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늙어빠져 넘어질까 부축하면서도 막무가내로 잡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아이구, 그 연세에 일하시니 대단하십니다."하고 립서비스를 한다.

그건 오죽 못났으면 '그 나이 먹도록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측은하다.' 이거다. 남들 같으면 은퇴라는 방패를 들고 필드에서 나가 망중한을 즐겨야 할 나이인데 막노동하다니 누가 봐도 불쌍하기 그지없다.

지금은 100세 시대란다. 내가 100세가 되려면 아직도 10여 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자니 너무 긴 세월이다. 10년을 무위도식,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래서 일하는 건 아니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하는 게 나의 생존 수단일 것 같으므로 일하는 거다.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따분할까? 너무 무료해서 돌아 버릴 것 같다.

일을 즐겨야 한다. 일하는 가치와 보람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지겹고 따분할까.

화가에게 붓을 주고 그림을 그리라 하면 침식을 잊고 몰두한단다. 어찌 화가뿐이랴. 도둑도 일하고 사기꾼도 열심히 일한다. 도둑은 도둑질하는 게 즐거움이고 보람이요. 사기꾼은 사기질을 치는 게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도둑이 들키지 않고 부잣집을 털어 한몫 챙겼다면 얼마나 흡족할까? 사기꾼이 사기질을 잘해 일확천금했다면 가슴이 뿌듯할 노릇이다.

누구나 일에 몰두한다는 것은 보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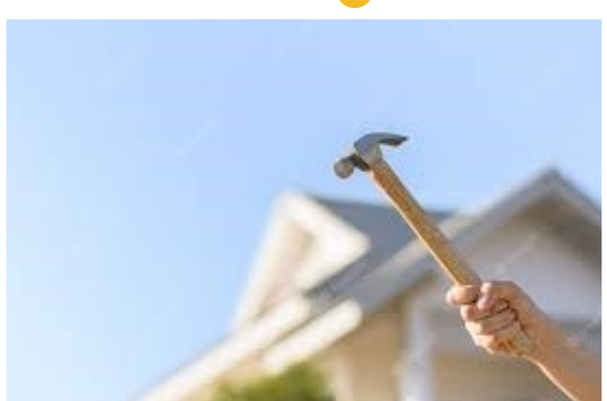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보람을 알 리가 없다. 일하는 사람의 가치와 보람이 사회적이고 보편적이어야만 진정으로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맛볼 수 있다. 그 반대라면 들킬까 봐 겁먹게 되고 걸려들까 봐 오금이 저릴 터니 진정으로 일하는 즐거움이 스트레스로 쌓일 게다.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가치 있는 삶이다. 남들은 건강 챙기려고 아까운 돈 낭비하며 억지로 운동하는데 즐거움으로 일하면 돈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니 금상첨화다.

돈이 생기니 얼마나 좋을시고. 친구 만나 기분 좋게 한턱낼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 없고 곶감 꼬치를 빼 먹듯 지갑 축내지 않고 그냥 공짜로 건강 챙겨지니 이러다 100세를 훌쩍 넘길까 봐 겁이 난다.

일하다 보면 몰두하게 되니 스트레스와 잡념이 끼어들 틈새가 없으니, 우울증과 치매는 '걱정 뚝'이다. 일을 끝냈을 때 해냈다는 성취감, 이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

일손 놓고 푹 쉴까 하다가 오줌똥 가리는 날까지 일하기로 다짐해 본다.



어떤 헌신 / 박유니스

교회 뜰에 아침 햇살이 눈 부시다. 주차장에 장애인 차가 보인다. H 집사 댁 차다. 제3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H 집사님은 몇 달에 한 번씩 귀국한다. 부인은 여러 자녀를 돌보느라 평소에는 교회에 자주 출석하지 못한다. 그중 두 따님은 장애아다. H 집사가 선교지에서 잠시 귀국하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온다.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H 집사의 부인이 입구 가까운 쪽 복도에 서 있다. 두 딸의 장애인 휠체어 사이에 있다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눈으로 H 집사를 찾았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앞쪽에 자리 잡고 있다. 마치 가족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듯이 보인다. 한동안 집을 비운 아빠가 오늘만이라도 힘든 삶을 이어가는 두 따님의 손을 잡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H 집사가 언제 소명을 받았는지 선교 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저간의 사정을 나는 잘 모른다. 그토록 귀한 일을 그에게 맡김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이 먼 이국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가족의 고초와 부인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댁 맏따님과 막내딸은 휠체어에 얼굴이 고정되어 옆으로 돌리지도 못하는 중증 지체 장애인이다. 나머지 세 건강한 자녀들의 양육도 오로지 부인 몫이다.

신앙의 불모지인 제3국에서 H 집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고생과 수고와 눈물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도 그에 못잖은 귀한 일임에 틀림없지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가서 전해야 더 값어치 있는 일일까.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가장의 일도 중요한 의무가 아닌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동서고금 인간 삶의 근간이 된 가치가 아니었던가.

미국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시설이 잘되어 있고 물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노인에 대한 복지도 여타 국가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그렇듯 엄청난 혜택은 자손이 없거나 부모를 봉양할 의사가 없는 자식을 둔 노인의 경우에 한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로써 장애를 가진 자녀를 국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찍힌 동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마태복음 22장~21절)

이때 말씀하신 것이 오로지 세금에만 국한된 것이겠는가. 세금도 의무도 사랑도 헌신도 모두 나누어야 할 곳, 필요로 하는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나라를 경영하는 국가와 마땅히 누려야 할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자녀와

명상에서 얻은 자유 / 김영애

주위가 고요하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는다. 맑을 것 같은 영혼은 세상의 미세먼지에 오염되었는지 선명하지가 않다.

시간이 지나자 혼의 탁한 기운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영혼은 썰물 끝에 남은 갯벌처럼, 세상에서 내쳐진 듯 초라해진 느낌이다. 어쩌면 그것은 시끄러운 세상 물결이 빠지며 자연스레 드러나는 나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아니, 성황리에 막을 내린 공연의 끝머리처럼 모두가 사라지고 화려했던 세상의 소리조차 자취를 감추며 생기는 적막 속의 고독일 것도 같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단전의 동굴에서부터 뿜어지는 들숨과 날숨으로 온몸이 편안해지자, 맑은 영혼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신비롭게 전개된다. 어깨에 얹힌 책임과 의무, 온갖 세상 시름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면서 무한한 시공 속에 나만의 세상이 펼쳐진다.

한편으로 헤아려보니 명상은 허공을 닮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한히 넓고 커서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허공. 명상을 통해 영혼을 허공같이 커다랗게 만들면, 삶에 걸리거나 막히지 않아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듯도 싶다. 허공은 허허로워서 결코 다치거나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허공에는 그 어떠한 것도 새겨 넣을 수가 없다. 삶에서처럼 내 것과 네
것에 금을 그어 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와 나의 잘못도 새겨 넣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명상은 영혼을 허허로운 허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해 보면 삶도 허공을 닮아서인지 내 것이라는 집착이나 아집이 불가능할 듯싶다. 거대한 우주 속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 한 모퉁이에서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을까. 우주의 큰 눈으로 살피면, 삶은 죽을힘을 다해 허공같이 비어진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 듯도 하다. 사람들은 신기루 같고 허공 같은 삶을 움켜쥐려 애쓰지만, 떠날 때는 누구도 그 무엇도 손에 넣어 갈 수 없지 않은가. 명상은 우리를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도 같다.

하지만 반대의 눈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허공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허공을 닮은 내 영혼도 나의 모두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속에는 극과 극을 이루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지옥과 천국을 오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허허로운 명상도 삼라만상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P 8쪽 ⇨

소외된 계층에게 햇볕처럼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남편이 교회 앞자리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동안 부인은 뒤쪽에서 두 딸을 건사하며 서성이다가 휠체어 둘을 힘겹게 돌려 교회 별실로 자리를 옮긴다. 온 교인이 웃음꽃을 피우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에도 별실의 문을 닫고 세 모녀만의 식사 시간을 가질 것이다. 휠체어에 젊음이 갇힌 30대 따님과 부모가 떠난 후에 더욱 힘든 시간을 살아가야 할 막내 따님과 함께.

예배가 끝났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을 먹으며 친교를 나눌 심정이 아니다. 천천히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온다. 햇빛이 길 위에 희게 부서지고 있다.

P 7쪽에서 연결

그곳에서는 온갖 파노라믹한 영혼의 세계가 변화무쌍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혼이 열리고 자신만의 세계가 무한대로 펼쳐지면 그것은 유한과 무한의 세계를 경계 없이 넘나든다. 산이 되었다 물이 되고, 바다로 변했나 하면 하늘로 승천해 구름이 되었다. 마침내는 지구를 휘돌아 광대한 우주로 변한다. 온갖 세상이 생겨났다 소멸되며, 무한한 영겁이 찰나로 돌변하는 명상의 세계. 작은 지구의 한구석에서 나는 모든 의식의 시작과 끝을 명상을 통해 창조하고 멸진시키고 있는 까닭이리라.

영혼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찬 명상이 이어지면, 혼은 싸한 민트 향을 주입시킨 듯 투명하게 맑아진다. 반복되는 단전호흡으로 가슴이 청량한 기운으로 가득 차면, 혼은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하듯 부드러워지다 우주와 하나를 이루며 무한대로 커지는가 싶더니 불현듯 한없이 풍요롭고 넉넉해진다.

우리 인생은 부모가 지어준 몸을 빌려 쓰며 잠시 세상에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이다. 헤아려 보면 삶도 세상도 잠깐 빌려 쓰다 자연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문득 뒷마당으로 눈을 돌리자 장미와 보겐불라가 명상에 잠긴 듯 온몸에 정(靜)을 이루며 침묵하고 있다. 세상이 구별해 놓은 잘난 꽃도 못난 꽃도 차별 없이 명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깊은 명상을 통해 예쁘고 밉다는 형상의 분별 조차 무너진 것 같다. 돌아보면 세상이 만든 잘나고 못났다는 분별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은 얼마나 세간의 덫에 걸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을까. 명상을 통한 자연의 눈으로 보면 원래 분별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나누고 구별하며 세상의 온갖 번뇌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

명상은 들숨과 날숨을 자연의 호흡과 맞추며 그것과 하나를 이루어 자연인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명상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된 영혼은 어느 생명체와도 소통이 가능해질 듯싶다. 시공을 잊은 혼이 명상을 통해 우주를 윤회하며 찰나와 겁을 오가는 동안, 하염없는 평온함은 온몸 세포에 넘치는 희열로 퍼져 나간다.

생각해 보면 명상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관조할 수 있게 만들어, 생의 진한 통증까지도 슬기롭게 끌어안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 삶의 질통을 명상으로 승화시키고, 자기 분수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을 내려놓고 명상에 들면 영혼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 살아 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식량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무한한 자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살아 있음에, 오감의 온갖 빛으로 삶의 수채화를 그릴 수 있기에 인생은 아름답고, 그 순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 같다. 천국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피어나는 순간마다 영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 J

문 앞을 서성이며 / 신순희

노을은 이미 넘어가고 별이 하나둘 총총거리기 시작한다. '유종의 미'를 생각하며 나는 창밖 어두컴컴한 하늘을 바라본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별이 되는 달, 그해의 마지막을 별처럼 장식하는 달, 거리는 인파로 출렁이고 상점은 불빛으로 찰랑대고...누구라도 기도하고픈 12월이다.

기쁨도 슬픔도 저물고 있다. 하루를 내 맘대로 계획해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진작 알았다.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게 다행이다. 뜻밖에 좋은 일이 생겨 행복해하다가도 느닷없이 일어나는 불행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하겠는가. 행 불행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지만, 안다고 대처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 그저 흘러가는 것이 인생 아니던가. 이제 나는 아쉬움 없이 한해의 문을 닫으려 한다. 미련이 머뭇거리며 뒤돌아보아도 겸손한 미소로 작별하련다.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돌아 마지막과 시작이 맞물리며 갈 테니.

산다는 것은 줄줄이 밀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숨 돌리고 나면 다시 또 해결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올 것이다. 뜻대로 풀리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마는 것. 새해에도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얼굴을 내밀겠지. 문제가 아니라 숙제라 생각하겠다. 살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단지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염병도 지나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두문불출하고 살았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그리 두려울 줄이야.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는 일상이 복인 줄 몰랐다. 계절이 오고 가는지도 몰랐다.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꼼짝 못하는 현대인이라니. 먼 훗날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 대면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로 기억될 것이다. 세상이 온통 균에 시달려 몸살 앓았지만, 끝은 오고야 마는 것이니 돌이켜 보니 감당 못 할 일은 없었다. 힘들긴 했지만 잘 버티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이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담소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후련하게 마지막 달력을 떼어내야겠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후회한들 무엇하나. 일을 앞두고 하는 염려 근심은 병이 되기도 했건만, 생각해 보면 걱정하는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건만, 연약한 자신을 탓하면서 모자란 대로 시간이 갔구나. 달력이 해와 달을 구별해 놓아서 그렇지, 인생이 어디 구분되는 건가. 한 연장선에 있는 길인걸. 달려가든 쉬어가든 돌아가든 마지막 목적지는 같다. 겸허한 마음으로 한해의 문을 닫겠다.

연말이 좋은 이유는 새해가 있어서다. 새 다짐을 할 수 있으니 허전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다. 열두 달의 문이 닫히고 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지만, 나는 미루겠다. 게으름 좀 피워보겠다. 못다 한 일은 새해로 미루면 된다. 새해라고 새로운 일만 바랄 수는 없다. 문은 닫히고 열리는 것, 절망으로 닫히면 희망으로 열면 된다.

창밖, 처마 끝에 매달린 별들이 초롱초롱하다. 바람 불면 흔들리는 불빛이 애처로워도 꺼지지 않는다. 길 건너 정원수도 반짝이며 서 있다. 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올 한해 고비마다 넘어가느라 애쓴 나를 위로한다. J

잃어버린 워커 Walker / 김수영

50주년 한인의 날 축제가 엘에이에서 개최되었다. 10월 12일에서 15일까지였다.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나로서는 엘에이에서 열리는 어떤 행사도 참석하기 참 힘들다. 나이 탓에 장거리 프리웨이 운전은 삼가기 때문이다.

축제 행사장 코너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곳에 나의 시 서화전이 전시된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발이 묶여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멀리 사는 딸에게 전화했다. 내 시화전이 열리는 엘에이에 가야 하는 데 이곳에 와서 운전을 주면 참 좋겠다고 했더니 기꺼이 오겠다고 했다. 멀리 새크라멘토에서 딸은 단숨에 달려왔다. 어찌나 고마운지 마음이 울컥했다. 자기의 일상 스케줄이 있는데도 모두 취소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시간과 물질을 엄마를 위해 희생하는 딸이 몹시 대견스러워 고마움을 금치 못했다.

토요일 일찍 일어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엘에이로 달려갔지만, 주차할 장소가 없었다. 행사장 근처를 빙빙 돌아보아도 거리마다 자동차가 넘쳐 도저히 주차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먼 거리에 주차할 장소를 발견하고 주차를 했다. 걸어서 멀리 있는 행사장까지 갈 일이 태산 같았다.

지난 7월에 집에서 넘어져 무릎과 허리를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퇴원하고 두 달 동안 열심히 치료받아 겨우 걸어 다니고 있었다. 혹시라도 하고 워커를 트렁크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몰랐다. 워커에 의지하여 장거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서 퍽 다행한 일이었다.

체육관에 먼저 들러 먼저 시화전 관람을 하고 딸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미술작품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에 가니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다.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사람에 치여 걷기가 고역이었다. 발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운데 워커를 끌고 다니려니 진땀을 뺐다. 한국에서 들여온 신선한 농산물을 사고 싶어 부스마다 기웃거려 보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으로 붐벼 상품을 사기도 퍽 힘들었다. 더욱이 나는 워커를 끌고 다녀야 하니 이중삼중으로 고역이었다. 부스마다 각양각색의 국산 상품이 진열되어 일일이 구경하고 싶었지만, 사람들 사이 헤집고 다니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다행히 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 부스를 헤집고 들어가 상품을 좀 살 수가 있어서 그나마 퍽 다행한 일이었다. 기름 바르지 않고 살짝 구운 햇김이 정말 맛이 좋아, 한 팩을 샀다. 완도 다시마, 완도 미역, 표고버섯 말린 것 등 다양하게 사다 보니 짐이 많아졌다. 다행히 워커 손잡이에다 플라스틱 백을 주렁주렁 매달 수 있어서 좋았다. 힘들게 워커를 끌면서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다니는 내 몰골이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였으리라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지었다.

화장품 부스에 갔더니 세안 비누가 가바(gaba) 과일로 만든 것이 있어서 한 통에 세 개가 들어 있어서 샀다. 산 비누를 워커 플라스틱 봉지에 넣으려고 옆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앗 어찌 된 일인가! 나의 워커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기절초풍

하고 하늘이 노래져 내 워커가 없어졌다고 비좁은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절름거리며 뒤뚱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아도 내 워커를 찾을 수가 없었다. 워커 주머니에 내 지갑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현찰이 들어 있었고 크래딧 카드, 운전면허 등 들어 있어서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청천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다.

순간 딸을 찾아 딸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체면불고하고 큰 소리로 딸 이름을 부르며 찾았는데 바로 옆 부스에서 딸이 내 워커를 갖고 상품을 사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동안 지옥을 헤매고 다녔는데 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상품을 사고 있지 않은가! 그때 느꼈던 안도의 한숨! 겪어 본 사람은 내 심정을 이해하리라. 찰나에 일어났던 어처구니없는 나의 쇼! 사람들이 많았기 다행이지 워커도 없이 허둥대며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을 것이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의 몰골을 생각하며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다.

집에 돌아와서 사서 온 물건을 딸과 나누어 가졌다. 행사장에서 순식간에 일어났던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연기를 했던 무명의 노여배우의 웃지 못할 연기에 한바탕 소리 내어 같이 웃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웃기세요. 놀란 토끼처럼 허둥대며 워커를 찾아 헤매던 모습을 보았더라면 포복절도할 뻔했어요. 엄마는 나이를 잡수시니 점점 어린애가 되어가시네요. 이젠 제발 그만 웃기세요." 그 당시 놀라 기겁을 한 나의 심정을 못 헤아려 주는 딸이 섭섭한 것도 잠시 둘이 얼굴을 마주 보며 깔깔대며 한바탕 웃었다.

바로 옆 부스에서 내 워커를 갖고 상품을 사는 딸도 보지 못 한 채 사람으로 붐비는 그 좁을 골목을 절름거리며 놀란 토끼처럼 워커를 찾아 헤매던 모습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딸과 둘이서 한바탕 또 웃고 또 웃었다.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 엔도르핀이 팡팡 쏟아졌다.

워커를 찾아 들고 여유롭게 행사장을 돌아다니는데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한국전쟁 직후 시골에서 열리던 장날이 생각났다. 사흘마다 열리는 삼일장 오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이 있었다. 엄마와 함께 장날 손붙잡고 다니던 생각이 떠올랐다. 특히 엿을 좋아해서 엿 사 먹고 사 들고 오던 추억이 삼삼히 떠오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몹시 그립기도 했다.

어머니는 특히 안동 간고등어를 한 두루미 사다가 처마 밑에 걸어두고 아버지상에 올렸다. 그 당시 전쟁 직후라 소고기 먹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아버지상에 올라간 간고등어가 왜 그렇게 먹고 싶든지 침을 꿀꺽 삼키는 저를 보시고 구운 고등어를 아버지가 주셨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버지 사랑에 목이 멘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또 오늘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무척 자랑스럽기도 해 마음이 뿌듯하다.

이번 축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J

시를 쓰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며, 평생 동안, 가능한 한 길고 긴 삶을 사는 동안 의미와 달콤함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 그다음, 오랜 삶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어쩌면 제대로 된 시구 열 줄쯤 쓸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경험들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적 소설 『말테의 수기』 중에서

고사리 증후군 / 박종진

미국에서는 야생 식물 채취를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헬렌 아주머니는 봄이 되면 고사리를 뜯으러 다니시느라 바쁘셨다. 그런데 고사리를 따고 나면 으레 몸살이 나서 며칠 고생하신다. 나는 그분의 병명을 고사리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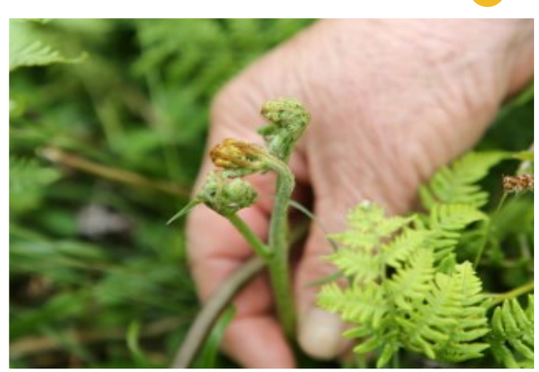
고사리 따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섶에 고사리가 보이기도 한다. 이왕 일을 끝냈으니 눈 딱 감고 지나쳐야 하는데 그 고사리 하나만 더 따려고 허리를 굽히다 보면 저만큼에 또 탐스러운 고사리가 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서 수확한다. 그런데 한 걸음 앞에 또 고사리가 나 잡아보라는 듯 자태를 뽐낸다. 잠깐 망설이지만, 엉금엉금 기어서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헤집고 다니며 무릎이 까지도록 고사리를 딴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세운다. 그런데 일이 되어 가면서 목표는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나는 맨 처음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최근에 시작한 글쓰기도 이미 정해진 목표가 있었고, 나는 운 좋게 벌써 그 목표에 도달했다. 주위에서는 새 분야에 입문해서 신인 인정을 받았으면 더 노력해서 그 방면으로 정진하라고 덕담을 하신다. 하지만 나는 내 실력을 잘 안다. 내 주제에 신인 대접이라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노력한다고 누구나 최고가 되고 박사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의 내 나이도 큰 변수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대접해 주려고 만든 말이기 때문에 우리네 노인은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루에 물건을 담아 움직이는데 너무 많이 채우면 쏟아져서 운반이 힘들므로 조금 덜 담아서 주둥이를 꽉 묶으면 멀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 나이가 돼서 느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이라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반 잔의 물을 보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며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

내 아버지는 44세에, 어머니는 88세에 두 분 모두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44 더하기 88 나누기 2를 하면 그분들 자식인 내 기대 수명 66살이 나온다. 나는 작년에 만으로 66살이 되었지만, 아직 멀쩡하게 무럭무럭 잘 늙고 있다. 물론 최근에 발달한 예방의학이나 좋아진 영양 상태 때문일 것이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내 남은 수명 얘기를 하셔도 크게 개의치 않을 마음의 준비를 했다. 무작정 오래 살고 싶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욕심이기 때문이다.

고사리 증후군이 내 말년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으려고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쉽게 포기한다는 말도 아니다. 나는 훌륭하신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고, 착하고 성실한 아내를 만나서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평생 전쟁 없는 곳에 살면서 헐벗거나 굶주린 적도 없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유전적으로 물려주신 내 기대 수명을 넘긴 지 오래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맞아 범사에 감사한다. 행복은 욕심을 줄여야 얻는다는 진리를 자꾸 되뇐다.



배롱나무 꽃잎을 쓸며 / 이종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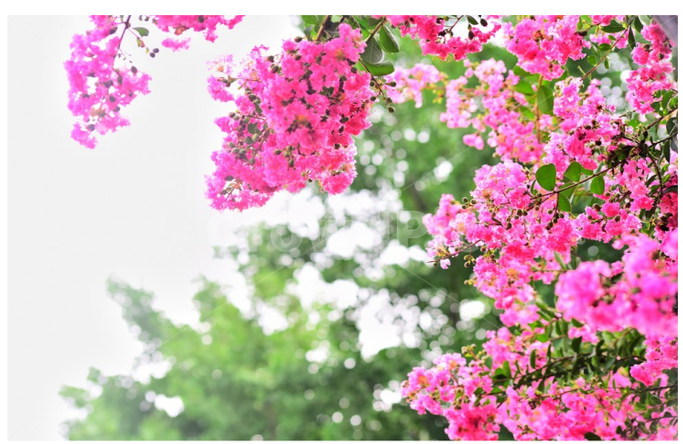
방문을 열면 네다섯 발 앞 작은 정원에 있는 배롱나무와 마주하게 된다. 껍질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난 연한 갈색 줄기가 매끄럽고 깔끔하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꽃잎이 흰색과 보라색인 배롱나무도 많이 있다. 내 집 앞 배롱나무는 진분홍색 꽃을 피운다. 가지는 풍성하고 화사한 빨간 꽃잎으로 뒤덮여 있다. 주변 수목이 모두 초록이라 한여름 진분홍 꽃나무는 멀리서도 눈에 띈다. 우아하고 기품이 돋보이는 자태가 마치 족두리 쓰고 다홍치마 저고리 단장하고 시집가던 날 내 누님을 연상케 한다.

배롱나무는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소교목이다. 특이하게도 뜨거운 한여름에 꽃을 피운다. 아니다. 계속 피운 꽃을 떨어뜨리고 또 피운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다. 7월부터 9월까지 핀 꽃을 떨어내고 또 피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백일동안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 백일홍 나무 또는 목백일홍이라 부른다. 백일홍의 소리가 변해서 배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한번 피운 꽃을 오래 유지하는 한해살이 화초인 '백일홍'과는 다르다. 최근 한국 원예학회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배롱나무를 아예 '백일홍'으로, 화초(花草)인 백일홍은 '백일초'라고 그 이름을 정리했다고 한다.

바로 방문 앞에서 이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며 나는 배롱나무와 친구가 되었다. 벌써 3년이나 되었다. '부귀와 행복', '수다스러움과 웅변', '꿈', '헤어진 벗에게 보내는 마음'이라는 배롱나무의 꽃말도 재미있다. 피고 지고 또 피는 배롱 꽃잎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더 재밌는 것은 배롱나무를 '간질나무', '미끄럼 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나무의 줄기를 손톱으로 긁으면 간지럼을 타는 듯 나뭇잎 전체가 하느작거린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의 배롱나무는 너무 미끄러워 원숭이도 매달려 있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긁어보았다. 웬걸, 반응이 없다. 알아보니 한국 충청도 지방의 배롱나무는 간지럼을 탄다고 한다. 뜨거운 여름에 꽃을 피우는 배롱은 아마도 기온에 민감한 것 같다.

배롱나무 꽃잎은 밤낮 가리지 않고 살며시 떨어진다. 이른 아침 산책하러 나가려고 문을 열면 현관과 정원은 이미 떨어진 배롱꽃 잎들로 진홍빛 꽃밭이 돼 있다. 집 앞길 위에도 마찬가지다. 차마 그 꽃잎을 밟을 수가 없다. 비를 들어 꽃잎을 쓴다. 그렇게 시작한 꽃잎 쓸기는 하루에도 서너 번 반복한다. 어느 이른 아침, 아내가 현관문을 반쯤 연 채 비질하는 나를 향하여 "낙환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삼하리요." 말하고는 피식 웃는다. 그 뒤, 내가 비를 들 때마다 아내는 '쓸지 말라'는 말 대신에 조선 시대 이름난 돈암(豚菴) 선우협(鮮于浹)의 시를 읊곤 한다.

「간밤에 불던 바람 만정도화(滿廷桃花) 다 지거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 하는구나.
낙환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삼하리요.」 P 14쪽



배롱나무 꽃잎을 쓸며 / 이종운

P 13쪽에서 연결

나는 못 들은 척 계속 꽃잎을 쓸어 담는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잎이 이렇게도 많다는 게 경이롭기만 하다. 더 놀라는 것은 그 많은 꽃잎을 날려버리고도 나무는 여전히 변함없이 꽃잎으로 뒤덮여있다는 것이다. 꽃잎을 탄생시키는 한편 떨어트리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무슨 말 못 할 사연이라도 있는 것 같다. 크고 무거운 바위를 끊임없이 산 정상으로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산 것일까.

꽃잎은 패디오 안 테이블 위에도 떨어진다. 거기는 아내가 정성 들여 돌보는 작은 선인장 화분이 이십여 개나 놓여있다. 어떤 운 좋은 꽃잎은 윤기 나는 선인장 잎에 안착한다. 마치 선인장이 피워낸 꽃 인양 자연스럽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싱싱함을 지탱케 해 줄 양으로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또 다른 많은 꽃잎은 배롱나무의 밑동이나 정원 바닥에 떨어진다. 한나절도 못되어 말라버린 꽃잎이 애처롭다. 그들 꽃이 태어나 살다 모체의 품을 떠나 서로 다른 모양으로 생을 마감한다. 태어나 부모의 보호를 받다 품 안을 떠나 자기 능력을 다해 살다 저세상으로 떠나는 인간의 모습과도 닮았다.

오늘도 조심스럽게 비질한다. 쓰레받기에 담는다. 배롱나무 밑동 가까이 있게 해주고 싶다. 물기 잃은 꽃잎은 배롱나무 밑동에서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다. 모체의 뿌리에 닿아 한 몸이 되어 내년 여름 싱싱한 꽃으로 환생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 가을학기 / 노영매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학교를 시작해야 하는 첫날이다, 여느 학생들처럼. 작년 이맘때 큰마음을 먹고 늦은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나에게도 개강 날이 다가왔다. 지난 일 년 동안, 매 학기 영문학에 관한 과목 하나씩, 모두 3과목을 마쳤다. 이번 가을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은 'Approaches to Literature', 봄 학기가 끝날 무렵에 미리 등록을 해두었고 지난주에는 잠깐, 학교 북스토어에 들러 교과서와 참고해야 할 소설책을 구입해서 배울 내용을 대강 훑어보았다. 큰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늘 마음에 스며드는 잔잔한 긴장감이 이번에도 나를 찾아왔다. 그래도 작년에 겪었던 만큼은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파킹랏이 붐빌 것 같아 일찍 집을 떠났다. 학교 캠퍼스로 들어서려는데, 저만큼 앞쪽에 누군가가 나에게 돌아가라는 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를 향하여 차창을 열었더니 "School is closed due to the storm."이라고 한다. 아뿔싸, 미리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지 않고 온 것을 후회했다. 지난주부터 L.A 지역과 Orange County 지역에 태풍 힐러리가 4등급으로 경보가 내렸고, 급기야 어제저녁 한동안 하늘이 잿빛이 되었고 강한 바람과 비가 뒤뜰 나무들을 몹시 흔들어댔던 것이 이제야 기억났다.

그대로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헛걸음했다는 이유로 우울해진 마음을 스스로 보상해 주고 싶었다. 차를 돌려 집 근처에, 아침 커피라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거킹'이라는 식당 자리였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왔다고 핸드폰이 알려주었다. 차를 주차하고 앞 유리창을 통해 보니,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들어가서 커피와 아침 식사를 픽업해 간다. 리뷰 4.6으로 꽤 인기 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진한 커

피 향과 뭔가를 구워내는 달달한 냄새가 좋았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다. 잘 왔다고 생각하며 랩톱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일상을 멈추고 삶을 뒤돌아본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는 잘 띄지 않아 알아채기가 쉽지 않는 것 중에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의식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떠올려본다. 생각이 흐를수록 점점 부수적인 것들은 가라앉고 보다 본질적인 것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다. 허락된, 이 움직임 없는 조용한 시간이 너무도 아름답게, 눈부시듯 찬란하게 빛난다. 시간 낭비했다고 상했던 마음이 치유된다. 움츠러든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린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 이번 학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았으나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오늘은 덤으로, 이런 선물 같은 시간이 주어져 이번 학기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까지 얻었다. 나는 정말 횡재한 것이다.

교회에서 맡은 '커피브레이크' 디렉터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싶었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집에서도 아들네가 들어와 갑자기 6명이라는 대식구가 함께 살게 되면서 일은 더욱 많아졌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이유로 내 꿈을 기꺼이 포기 했을 텐데, 지금의 나는 다르다. 기어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한 부분으로 끼워 넣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달라졌을까? 혹시 내 생애 마지막을 희미하게나마 눈치채서일까?

때를 맞추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들려온다. "Chiquitita, you and I cry. But the sun is still in the sky and shining above you. 작은 소녀야,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저 하늘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어. Try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예전처럼 한번 더 힘을 내서 새 노래를 들려주렴, 치키티타!'가 들린다. 나를 응원하는 것 같다. 세상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다.

"마침내 정말로 진실한 문장 하나를 쓰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중략)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야기를 공들여서 꾸미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주려는 사람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미사여구는 모두 다 잘라내 버리고, 맨 처음에 썼던 진실하고 간결하며 명료한 문장으로 돌아가 글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20대 시절이 담긴 산문집 『헤밍웨이 내가 사랑한 파리』(원제 A Moveable Feast)에서

하나 둘 셋 / 장명옥

하나, 왼쪽 팔꿈치로 왼쪽 궁둥이를 떠받치고.
둘,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침대보를 말아쥐고.
셋, 있는 힘을 다해~~~ 위로 치솟아 본다.
드디어 성공이다. 침대 위에 상반신이 앉아 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다니, 얼마 만인가! 뼛속까지 징징대는 아픔은, 이제는 사라진 눈물과 함께 뒤통수 뒤쪽으로 날아간 듯하다.

지난해 12월 11일에 남편 왼쪽에서 팔짱 끼고 밤길을 걷다,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다가 쾅, 내 몸이 무너졌다. 깜짝 놀라는 남편, 입을 아- 벌리고 엎더져 쩔쩔맸다. 일어나 보려 했지만, 세상 끝날 것같이 아픈 오른쪽 어깨, 엉엉 소리쳐 울어 보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할까?" 입속 말로 중얼거리며 쩔쩔매는 남편. 30분쯤 울다가 그래도 남편의 두 팔에 들려서 일어설 수 있었다.

집에 들어와 2층의 제일 얕은 침대에 쓰러져 누었다. 때맞춰 전화가 울리고, 잉잉 우는 내 소리에 대충 상황을 듣고, 그 밤에 파스와 약품을 들고 먼 길을 달려 와 준 Helen 씨 내외분, 천사같이 고마웠다. 파스를 더덕더덕 붙여 주고, 내일 일찍 침 맞으러 가자고 예약해 주겠단다. 언제나 친 언니같이 살갑게 돌봐 주는 이웃이 있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새벽 2시. 남편을 졸라 무조건 응급실로 가자 했다. 분명 큰일이 난 것이 틀림없는 듯하다. XRay 찍고 또 찍고, Ice Pack 눌러 주고, 데운 담요를 덮어 주고, 오른쪽 어깨 둥근 덮개가 금이 가고, 그 속에 알 같이 덮여 있는 돌림 뼈들도 몇 조각으로 부서져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단다.

"O.K! 그렇게 해주세요."

수술은 나도 몰래 끝이 났다. 웅성대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신음과 아프다고 소리치며 울어대는 낯선 곳에서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나는 무감각이다. 혹시, 수술 자리가 아프면 부르라고 말하고 간호사가 떠나갔다. 혼자다. 수술이 끝났는데 왜 안 아플까? 이상하네!

가만히 오른쪽 손을 잡아 보니, 차디찬 손은 있는데 만져지는 게 정말 이상했다. 오른쪽 어깨를 수술했는데 왜 손이 아픈 걸까?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보니 이건 손이 아니고 밀가루 반죽 덩어리다. 들어 올리고 왼손을 놓으니 '툭' 떨어진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다시 잡아 올렸다 놓아 보니, 또 '툭!' 세 번을 들어 올려 봐도 전혀 내 몸 같지 않은 물컹 덩어리 아닌가!

간호사를 불렀다. 내 손이 왜 이러냐고, 울면서 물어보니 "아, 마취가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마취가 풀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무서운 아픔이 느껴질 테니 그때 알려 주세요"하고 돌아갔다. 수술 끝난 시간이 오후 2시였던 것 같은데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도 마취가 안 풀렸구나. 기다리다가 나도 몰래 잠이 들었다.

얼마가 지났나? 왼손이 오른쪽 목 아래로 손이 가며, 매서운 아픔이 찔러 왔다. 간호사를 부르니 알겠다며 링거병에 진통제 약을 주사한다. 아프면 곧 알려 달란다. 마취가 끝났다는 건, 내 오른쪽 손도 감각이 돌아온 것이겠지? 왼손으로 다시 오른손을 잡아보니, 두 손이 마주 잡고 악수를 한다.

아, 다행이다! 왼손과 오른손이 마주 잡을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한가. 그래! 우리 몸의 두 개씩

2023년 회비납부 현황 (1월 ~12월 31일)

* 연회비 / 김원 이진용(23, 24) 이현인 김정숙 한남옥 정유환 이명숙 유영주 임선주 김탁제 양상훈 박종진 곽남인 김혜자 최미자 이종운 김홍기 공순해 조옥동 노영매 이혜숙 신순희 김민정 우연실 김수영 전월화 조모제스 김영교 *장명옥 (2024년) *김영화(2024년)
* 이사회비 / 유숙자 김카니 이현숙 한 영 박유니스 이리나 이희숙 신혜원 최근자 배헬레나 정조앤 조성환 김석연 권조앤 백인호 조만연 박진희 성민희 이정호 정찬열 이원택 최숙희 *유숙자(2024년)
* 25집 출판비 / 이진용(23, 24) 이리나 김정숙 한남옥 이명숙 유영주 박종진 김석연 곽남인 유숙자 최미자 이종운 김홍기 공순해 박진희 노영매 성민희 정조앤 김카니 이혜숙 배헬레나 이정호 정유환 신순희 이현숙 이희숙 김민정 우연실 권조앤 양상훈 임선주 김혜자 정찬열 이현인 김수영 한 영 이원택 최숙희 전월화 신혜원 박유니스 백인호 조모제스 김영교
* 25주년 문학 세미나 후원금 / 유숙자 박진희 김카니 이현숙 한 영 정조앤 이리나 김석연 신순희 백인호 이정호 신혜원 성민희 이희숙 배헬레나 김홍기 김은집 지성심 김영애 최숙희 이원택 (상견례 식사 접대)
* 협회 후원금 / 김카니 이현숙 이리나 최근자 정조앤 김탁제 최미자 김홍기 박진희 임창희 (동호인)
* 송년회 후원금 / 이진용 한 영 김영애 이현숙 정조앤 박유니스 김석연 김인철 한광성 김홍기 김은덕
  물품 도네이션 - 이정호 유숙자 신혜원 최숙희
* 송년회 회비 / 이정호 이희진 김혜정 이현인 이종운 권조앤 이진용 한영 이희숙 박유니스 김닉 이제임스 김석연 이리나 이창범 김혜경 배헬레나 이현숙 조 짐 제이 빈센트 조성환 임선주 김현실 김제임스 김마이크 안상선 이명숙 유숙자 오연희 김홍기 김은덕 티모시 샬린 홍용희 조형숙 유영주 한광성 한케빈 최숙희 김영애 이원택 김한나 정조앤 신혜원 임지나 (47명)
  회비면제– <신인상> 김영화 김양혜 김미키 이영신 <연주자> 김인철
* 서재개설비 / 이진용 이현인 김정숙 한남옥 이명숙 정유환 이혜숙 *김영화(2024년)
* 퓨전수필 후원금 / 엄영아 (동호인) * 24집 책 구입 / 이진용
* 본협회는 여러분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회비 / 연회비 $120 / 이사회비 $200 / 출판비 $150 / 서재 개설비 $50 / 후원금
* 회비 납부처 / Pay to the Order: KEAA *문의 / jaemisupil2021@gmail.com
  주소 / 정조앤 (JOANNE CHUNG) 22702 FONTHILL AVE,. TORRANCE, CA 90505

⇨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하게 균형을 잡아주고, 함께 도우면서 백 세 인생을 견뎌 내라고 만들어 주신 창조주의 크신 계획임을 감사한다. 어깨는 다쳤지만, 다행히 두 발은 무릎의 작은 상처뿐이라 걸을 수 있다.

병실에서 보니, 걸을 수 있다는 건 살아 있는 사람의 큰 축복임이 틀림없다. 물리 치료사가 와서 걸어보라 해서 병원 복도를 쭉 걸어 다니니, 다음 날로 퇴원하라 해서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퇴원하고 집으로 왔다.

오른손은 부상병의 어깨걸이를 걸치고, 숟가락도 못 잡지만, 왼손으로 Folk는 잡을 수 있으니, 남편이 깎아 준 과일 접시가 진시왕의 수라상보다 못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숨어 있던 왼손의 재주를 하나둘 찾아보는 거다. J

임원진 소개

회장 / 이현숙
부회장 / 이정호
사무국장 겸 회계 / 정조앤
서기 / (대면) 신혜원 (줌) 박진희
홍보 / 이희숙
편집 / 정조앤 이리나
웹사이트 관리 / 정조앤
게시판 관리 / 박진희
유튜브 영상 제작 / 이현숙 이정호

지역별 동네빙 소개

* 엘에이방 / 방장 : 이정호 (부) 신혜원
  김양혜 김영애 김정숙 노영매 유영주 이현숙 조모제스
  한남옥 홍용희
* 밸리방 / 방장 : 이리나
  김석연 독고윤옥 배헬레나 유숙자 이진용 전월화 조옥동
* 토렌스방 / 방장 : 최숙희
  김영교 김영화 이영신 이혜숙 장명옥 정조앤
* 오렌지방 / 방장 : 이희숙 (부) 우연실
  김수영 백인호 성민희 이현인 정찬열
* 얼바인방 / 방장 : 권조앤 (부) 임선주
  김홍기 박유니스 이명숙 이중운 한영
* 온동네방 / 방장 : 박진희 (부) 김민정
  공순해 곽남인 김미키 김혜자 박중진 신순희 양상훈

재미수필 유튜브 채널 소개

#01 2022년 5월 6일 협회 연혁과 활동
#02 동인지<재미수필> 계간<퓨전수필>

-재미수필문학상-
#03 제4회 유숙자
#04 제6회 공순해
#05 제7회 조만연
#06 제8회 이현숙
#07 백인호
#08 조옥동
#09 김영교
#10 김석연
#11 정찬열
#12 박유니스
#13 성민희
#14 한 영
#15 퓨전 / 여름호
#16 박신아
#17 김카니
#18 최미자
#19 김혜자
#20 권조앤
#21 박진희
#22 김수영
#23 정조앤
#24 신순희
#25 신혜원
#26 이정호
#27 배헬레나
#28 이희숙
#29 퓨전 / 가을호
#30 이원택
#31 우연실
#32 최숙희
#33 임지나
#34 조모제스
#35 유영주
#36 노영매
#37 곽남인
#38 출판기념회
#39 전월화
#40 아듀! 2022년
#41 유숙자
#42 공순해
#43 퓨전 / 겨울호
#44 양상훈
#45 이리나
#46 이혜숙
#47 백인호
#48 김수영
#49 김석연
#50 박유니스
#51 김혜자
#52 한 영
#53 김카니
#54 신혜원
#55 퓨전 / 봄호
#56 최미자
#57 권조앤
#58 김영교
#59 김정숙
#60 이정호
#61 박진희
#62 이명숙
#63 정유환
#64 이진용
#65 이현인
#66 우연실
#67 김영국
#68 한남옥
#69 퓨전 / 여름호
#70 이희숙
#71 배헬레나
#72 이리나
#73 양상훈
#74 전월화
#75 이혜숙
#76 문학세미나
#77 유숙자
#78 조모제스
#79 공순해
#80 박유니스
#81 퓨전 / 가을호
#82 김석연
#83 김영교
#84 유영주
#85 김혜자
#86 김수영
#87 아듀! 2023년
#88 출판기념회
#89 조만연
#90 제9회 문학상-
한 영

제25집 재미수필 출판기념회 및 시상식 이모저모

<웹사이트 행사앨범 게시판

겨울 행시 / 눈꽃송이 <웹사이트 접수 순>

김수영
눈처럼 소복한 여인이
꽃을 듬뿍 임 가시는 길에 뿌려
송구한 마음 다함이 없는데
이토록 임 향한 일편단심 가히 없으라

신혜원
눈처럼 희고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면
송이송이 꽃송이 되어
이부자리 위에도 따뜻이 내려 앉으리

박유니스
눈여겨보았던 그 사람
꽃다운 시절에 만난 사람
송별회 가진 후 헤어지던 밤
이지러진 그믐달이 희붐하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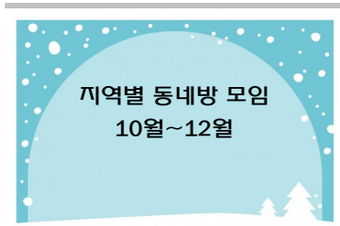
이희숙
눈빛이 머무는 곳에
꽃무리 지어 흩날리며
송골송골 피어나누나.
이해하며 보듬는 마음들이

성민희
눈을 감고 누워도 보이는 얼굴
꽃송이로 피어나 천정에 가득 차네
송글송글 속눈썹에 맺히던 눈물
이 밤에는 어쩌자고 별이 되어 찾아왔나

이정호
눈처럼 하얀 그대여
꽃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며
송이송이 피어나는 그대 모습
이 곳에 한없이 머물고 싶어라

이리나
눈을 감고 꿈을 꾼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내리는 것을
송구스레 손을 모으고 있는
이 사람 위로

박진희
눈코입귀 고만고만하게
꽃망울처럼 영글어
송이버섯같은 속살로
이만큼 있어줬던 젊음아, 천천히...



* 온동네방 / 11월 19일(Zoom)
* 밸리방 / 10월 12일(Zoom) 11월 11일(대면)
* 엘에이방 / 10월 12일(Zoom) 11월 11일(대면)
* 토렌스방 / 12월 13일 (대면)
* 오렌지방 / 11월 20일(대면)
* 얼바인방 / 10월 17일(Zoom) 11월 21일(Zoom) 12월 12일(대면)

'재미수필' 웹사이트 안내 jaemisupil.com

* 웹사이트에서 English Essay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 English Essay
* 창작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협회 회원에게 개인 서재를 제작해 드립니다.(개설비용 50불)
* 웹사이트 가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문의: jaemiupil2021@gmail.com
* 활동을 중단한 회원은 등업에 준하여 하향 조정합니다. (예) 협회회원 >>> 일반회원

협회 소식 및 회원 동정

* 양상훈 수필가 출판기념회 일시: 2월 17일(토) 오전 11시
  장소: 용수산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 2024년 1월 상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신입회원 인준
  <김영화 김양혜 이영신 김미키 홍용희>
* 25집 재미수필 출판기념 · 시상식 - 일시: 12월 9일 오전 11시
  장소: 용수산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 2023년 10월 하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신입회원 인준
  <김영애 독고윤옥 장명옥>
* 전월화(모니카 류) - 11명의 한인사회 모범인물에 선정
* 이원택 수필가 제21회 '재미시인상' 수상
* 우연실 수필가 한국방문 / 친정 어머님 병문안

타 문인협회 소식

* 재미시협 시무식- 일시: 1월 27일 오후 4시 / 장소: 용궁 식당
* 미주문협 시무식- 일시: 1월 20일 오후 5시 / 장소: 로텍스 호텔
* 재미시협 '외지' 출판기념회·시상식- 일시 12월 16일 오후 4시
  장소: 로텍스 호텔 3411 W Olympic Blvd,. LA, CA 90019
* 미주시조협회(Zoom) 미주시조 2호 출간기념 - 시조 콘서트
  강사: 홍성란 시인 / 일시: 12월 5일 오후 6시
* 미주한국소설 13회 출판기념회 / 일시: 11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강남회관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19
* 창립 28주년 오렌지글사랑 첫 수필집 <마디 출판기념회>
  일시 9월 23일 오후 12시 / 장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편집후기

2024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글 많이 쓰십시오.
올 한해 퓨전수필을 잘 엮어서 수필협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앤>

반가운 비도 흠뻑 내리고 이번 호에는 10분이 귀한 작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좋은 작품을 선보이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나>

창간호 발행 1999년

계간 퓨전수필 2024년
겨울호 (1월~3월)
통권 제84호
발행일 2024년 1월 14일
발행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U.S.A.

YouTube: 재미수필
Website: jaemisupil.com
jaemisupil2021@gmail.com

발행인 이현숙
sook1961@hotmail.com
편집인 정조앤
jchung315@yahoo.com
이리나
llee439@yahoo.com

바실리 칸디스키
(1866~1944)